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8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장재웅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하박국 3:2)

복음으로 풍성한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6월 말부터 시작된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23개 교회학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합 3:2)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큰 기쁨과 부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골 34:26) 지난 주간에는 대 학부와 에바다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으며 이번 주간에는 장년1·2부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교회학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영아·유아·유치·유년·초등·소년·중·고등부의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도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복음적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각 부서 선생님들은 기도해 물론 평일에도 교회에 나와서 진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천국일꾼 양성은 선생님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골 1:9)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석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학업이나 기타 일들을 반드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딤후 3:14)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는 복음을 집중적으로 배우며 십자가 공동체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2008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합 3:2)

부 서	일 시	장 소	부 서	일 시	장 소
영아부	7.29(화)	영아부실	중등3부	7.24(목)~25(금)	충현기도원
유아부	7.29(화)	유아부실	고등부	7.29(화)~31(목)	충현기도원
유치부	7.29(화)	유치부실	청년1부	8.14(목)~15(금)	충현기도원
유년부	7.29(화)	유년부실	청년2부	8.15(금)~16(토)	교회, 충현기도원
초등부	7.29(화)	초등부실	장년1부	7.18(금)~19(토)	충현기도원
소년부	7.29(화)	소년부실	장년2부	7.17(목)	제1교육관 407호
중등1부	7.28(월)~29(화)	충현기도원	사령부	8.15(금)	사령부실
중등2부	7.28(월)~29(화)	충현기도원			

말씀과 삶(금요찬양집회)

7.아름답고 귀한 소식

‘죽음과 생명’ 임을 알고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만약 자신의 욕망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강조하고 대답을 찾으려 한다면 꾀술의 조작만 보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초점을 맞출 때에야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요일 2:2 ; 롬 3:26)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실 분노와 증오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죄의 값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롬 6:23) 어떻게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다루어 주셨는가? 십자가에서 죄를 다루시고 죽은 자에게 부활의 새생명을 주셨다.(고후 5:21)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영원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안전하다.(롬 8:1, 38-39)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된 말씀처럼 보편화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막상 나의 실존적인 매일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역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거나 또는 살피기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성경이 말씀해 주는 ‘용서’의 범위는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그 의미가 훨씬 깊고 그 범위가 넓다. 죄의 궁극적인 문제는 ‘화해’에 있다.(고후 5:19) 온 세상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요 1:5,12) ‘화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 곧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 주셨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구원이 될 수 없다. 구원은 ‘말씀’과 ‘작’에게만 역사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벽을 없애 주시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게 하셨다.(골 2:13) 따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단 하나의 죄는 ‘믿지 않는 죄’이다.(요 3:18)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을 벌 주며 이 세상에서 죄

와 죄인들을 제거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인간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역사이다.(롬 5:6,8,10)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셨다.(눅 23:34) 예수께서 스스로 택하신 그의 행하신이다. 땅자를 향한 아버지의 심정 또한 사랑과 용서였다.(눅 15:20, 22-24) 지금도 하나님은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죄를 범한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눅 15:10)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용서와 그리스도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보다는 오히려 주저한다. ‘이 진리의 말씀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안일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다. 신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지칭된다. 복음의 메시지는 항상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선포된다. 왕과 결혼으로 왕비가 된 창녀와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고후 5:17)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해야 한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성도’ 또는 ‘거룩한 자’라고 기록하였다.(고전 1:2) 그러나 우리들은 자신을 부를 때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 부른다. 나비를 보고 ‘변화된 애벌레’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많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계속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와 문화를 따라 자신을 판단하고 있다.(골 3:1-3) 이것으로부터 자유하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엡 1:3)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설명해 준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엡 5:8)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엡 4:1)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새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 아멘.

FATHER, FORGIVE THEM

But Jesus was saying,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And they cast lots, dividing up His garments among themselves.

(Luke 23:34)

When Christians focus on the cross revival comes, but when we focus on other things there is no revival. All those beside the cross were excited, some over material things, like Jesus' garments, and others over judging Him, like the religious officials. All human beings have the tendency to get excited over the wrong things. The purpose of the cross is to bring revival. The New Testament church is our example of revival. The cross and resurrection were their message. Compare the recent church with the New Testament Church. What a difference! Today's churches are filled with all kinds of excitement, but not the kind that brings revival. People walk around here greeting and blessing each other, but nothing comes of it because they are not focused on the cross. When you look at what surrounded the cross - the trials, scourging, crown of thorns, crying, screaming, crucifixion, and the most hypocritical religious people - you can capture its terribleness. Nothing is worse than the crucifixion of Jesus Christ. What were Jesus' first words hanging on the cross?

The very first word that came from Jesus was "Father." At the most desperate time, Jesus prayed. Even though everyone was doing their own chaotic things, at that rugged cross only Jesus and God were there. Jesus relied on His Father. I'm asking you to take a closer look at this because we've become complacent about the seriousness of our hour. The prophetic program of the ages is unfolding! Terrorism is spreading, gas prices are soaring, and deadly viruses are increasing. Our time is running out, but people are still busy with the day to day activities and excitement of this world. My dear friend, it is time to pray. Prayer is always the foundation of revival. When we pray, kneeling down and humbling ourselves before God, we can experience God's wonderful ministry. Listen to God's requirements for blessing, "and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I will hear from heaven, will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 (2Chr. 7:14) Humility, prayer, devotion, and repentance need to keep us busy now. God asks His people, His church, to pray. God works through prayer.

After Jesus called on His Father, His very next word was

"forgive." Jesus was praying for forgiveness. He prayed, "Father, forgive." What a beautiful expression! It is so amazing how dirty wrongs can be made clean. This was the message of the New Testament church. Their message is definitely different than today's church. When preachers preach a sermon, if they touch just one sinner during their sermon that sermon is a success. Christ was able to forgive sins and this amazed His critics. I'm asking you, personally, are you a sinner? Seriously think about this for a moment: Are you a sinner? If yes, then today you will receive the best news, the most wonderful message: Jesus Christ forgives you. He died on the cross to wash away your sins. My dear friend, please recognize that a church that finds sinners and gives them the good news is truly the body of Christ.

Jesus ended his first sentence on the cross with the word "them." He prayed, "Father, forgive them." The greatest roadblock to revival is the lack of forgiveness among the people of God. People have the tendency to nurse old grudges. The church is crippled by petty grievances; by barriers between believers, family, and friends, but no one has been wronged as Jesus was wronged. You can forgive. The question is will you? On the cross Jesus forgave us. We must forgive each other. Please, come to the cross and the call to forgiveness. Since He forgave, we must forgive. We can forgive because we have been forgiven. Jesus taught us to pray,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Mt. 6:12) Can you pray the Lord's Prayer with a sincere heart? Can you let go of the wrongs that have been done to you and focus on the cross? Will you forgive him, her, or them so that Jesus can revive you?

My dear friend, please focus on the cross. Keep Jesus close to you all the time. If you want to experience a revival in your life, then make Jesus your number one priority in every facet of your life. Too many of today's church leaders have forgotten the cross. They ask for church revival, but for them revival is only numbers. Numbers have nothing to do with revival. Revival is all about the cross of Jesus Christ. If you focus on the cross, you will go through revival. It is God's way and the greatest blessing to those who live it. Amen.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누가복음 23:34)



김성관 목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집중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 부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로 인해 혼돈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걸음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종교관원들처럼 예수님을 비판하느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일에는 곧잘 흥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우리가 지표로 삼아야 할 부흥의 모델입니다. 초대 교회가 전했던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초대 교회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갖가지 흥미로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오가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초점이 십자가에서 벗어나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채찍질, 가시 면류관, 울음소리, 비명소리,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소리, 외식으로 가득한 종교인들 등등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그 참혹함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보다 더 사악한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아버지”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혼돈 그 자체였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은 그 거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이 모습에 여러분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적 황무지같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전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세를 예고하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석유 값이 폭등하고 있으며, 치명적인 바이러설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한 일상생활과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좇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부흥의 기조는 언제나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지금 우리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회개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향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신 다음 하신 말씀은 “사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기도는 아무리 추악한 죄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가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메시지는 현대 교회와 확연히 다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것을 듣고 단 한 명의 죄인이라도 회개한다면 그 설교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주님을 비판하는 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물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가장 좋은 소식이며 가장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들을

예수님은 “저들을”이라는 말로 십자가에서 외치신 첫 번째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부흥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용서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목은 감정을 감추어 둔 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교회는 사소한 원망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신자들, 가족, 친구들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들로 인해 교회는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목은 감정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용서할 것인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아와 용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마 6:12) 여러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한 부당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흥을 주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항상 예수님을 여러분 곁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부흥을 부르짖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부흥이란 단지 수적인 증가를 의미할 뿐입니다. 숫자는 부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 신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7. 9.)

우리와 동행하라 (민수기 10:29)



하셨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전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출 3:8)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미디안 광야에 도착한 모세는 호바에게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자고 초대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우엘의 아들 호바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건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민 10:29)

누가 이 초대를 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며 그들을 가나안으로 초대하셨다. (신 31:7) 모세는 미디안 사람 호바를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에 초대하였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세계를 향한 주님의 초대가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없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리 가나니 가서 너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죽음의 정거장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진리에는 무관심하다.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 영원할 것을 막고 있다. 계속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마 16:24) 자기 십자가를 지며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회개해야 한다.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호바들에게

회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1~3)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초대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은 세상의 그 무엇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 우리를 천국시민권자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골 3:20) 죄의 매에서 사는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하신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23)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

누가 이 초대를 받는가? 모세는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을 가나안 땅으로 초대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절지를 아니나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민 10:31)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초대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신다. 이 초대용하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은총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말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자.

누가 이 초대를 보증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초대하셨다. (출 3:7~8) 이스라엘은 이 초대를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출 4:30~3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장래는 안전하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자기를 험입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시어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 7:25)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을 보증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보충하신다. “내가 천국에의 아들의 이름을 얻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일 5:13) 주님이 친히 이 초대를 보증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초대인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 영원한 세계를 향한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말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초대를 전하자. “어서 돌아오요 어서 돌아오 오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깊도다.” (찬 527장) 아멘.

마가복음 강해 ①

* 매주 일요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다 (6:1-6)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될까?” (막 6:2) 예수님의 권능있는 가르침이 있었지만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 다만 놀랄 뿐이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전했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자신을 앞에 서 계신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고대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철저히 배척했다. (마 8:20)

나사렛 회당 안에 모인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지켜보았던 어르신들도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친구들도 있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의 반응은 이것이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야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형제야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막 6:3)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표현만 보더라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무시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천한 직업 종의 하인인 목수 출신에다가 사생아라고 오해를 받고 있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다. 더군다나 나사렛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시골이었다. (막 1:9)

종교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종교지도자들은 말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막 2:7)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뻐한 옛보고 있었다. (막 2:16)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였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메시아(그리스도)로 믿기보다는 나의 삶에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떠나버릴처럼 말한다. (요 1:46)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자고 예수님을 배척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낫아치신 예수님(빌 2:6~8)이셨건만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한다. 예수님의 경고를 잊지 말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막 4:12)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셨다. 주님이 친히 더럽고 냄새나는 곳으로 내려오셨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뿐이다. 자신이 처한 환경, 문화, 전통에 갇혀 예수님을 배척하지 말자.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자. 마음을 찢으며 진실로 회개하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은 진실로 존재하며 무서운 곳이다. (막 9:43) 말씀에 뿌리를 내리자. (막 4:17) 믿음이 강해져야만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된다. (막 14:27:28)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 다만 소수의 병자들을 고치셨다. (막 6:4~5)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삼히 여기셨더라” (막 6:6)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메시아임을 믿게 할 만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때를 미숙자가 아니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의 반응이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은 제한이 없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지 말자.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용하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골 2:20)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믿음의 길을 걸자. 아멘.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망글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자기부인과 절대적 항복을 선언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 지혜는 십자가 밑에 감추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담대히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되기를 간구하며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나아간 그 땅에 최근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공안당국의 경비가 삼엄한 것을 보고, 담대한 믿음과 땀 같은 지혜를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차로 7시간 가량 이동하여 사역지에 도착하니 겨울 같이 추운 날씨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시작하자 온화한 날씨를 허락하셔서 복음을 힘껏 전할 수 있었습니다. 농번기라서 젊은 사람들은 밭으로 일을 나가고 동네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네 어귀에서 찬안을 부르며 나와 계신 분들에게 노방전도를 하였고,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는 축조전도를, 들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봉사전도를 병행하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준비된 영혼들은 쉽게 주님을 영접하였으나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두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안아 주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을 때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였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적절한 때 우리들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셨고 부족하고 어눌한 우리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어 그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

워지고 몸 된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과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박성근(문사, 11교구 3지역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5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15일(화)~7월 23일(수)	7교구 2지역	최대환
7월 15일(화)~7월 23일(수)	19교구 1지역	박종태
7월 17일(목)~7월 24일(목)	24교구 6지역	임광신
7월 17일(목)~7월 24일(목)	24교구 9지역	박재현
7월 18일(금)~7월 26일(토)	13교구 7지역	이상배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7일(월)~7월 15일(화)	11교구 1지역	이양호
7월 9일(수)~7월 16일(수)	2교구 8지역	한현석
7월 10일(목)~7월 18일(금)	23교구 1지역	박규연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1일(화)~7월 8일(화)	11교구 4지역	조영철
7월 1일(화)~7월 8일(화)	16교구 5지역	양승찬
7월 3일(목)~7월 11일(금)	14교구 1지역	이희우

선교의 문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지만 공안의 감시가 매우 심하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떨리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후에 도착예배를 드리고 땅 밟기와 정탐을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지 택시기사가 다가왔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웠지만 공안을 조심하라는 말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강가에서 땅 밟기 기도와 정탐 중에 신후부부를 만나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다음 날 3인씩 조를 짜서 관광객인 양 위장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린 이 2명과 앞을 못 보는 모녀에게 전도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빛을 보았다고 한 팀원은 말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사역을 마친 뒤 쉼과 의식 사이에 두려움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 가슴이 답답했을 때 회개를 하였습니다. 다시 운전기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운전기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영접기도 후 운전기사의 집으로 가서 그의 어머니, 부인, 4명의 여동생, 동생의 부인, 이렇듯 9명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책을 전해 주면서 예수님을 만나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도 편안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선교의 문이 계속 열릴 것을 확신합니다.

강진택(목회집사, 21교구 5지역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고등부



이보신(장로, 고등부장)

고등부는 예배와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 천국일꾼을 양육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가정들이 '참 신앙보다는 세상에 잘 출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식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여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신부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현상과 교회마다 복음의 열정이 현저하게 식어 가고 있어 대부분의 교회의 교회학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천국일꾼 양성을 교회의 5대 목표 안에 두고 충현정학쌍생을 선별하여 양육하며, 교회학교를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며 관심양원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양육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나.

고등부는 매주일 오전 11시에 제2교육관 4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후에 새 친구 환영 및 등반, 생일축하 등 친교시간을 가진 후에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제2교육관 1, 3, 4층에서 각 반별로 담임선생님과 함께 분반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원자를 중심으로 5개의 그룹(성구부, 미디어부, 봉사부, 편집부, 물로스)으로 나뉘어 오후 1시 40분까지 소그룹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부는 380여 명의 1~3학년 학생들을 75명의 교사들이 섬기고 있으며, 예쁜 찬양대 및 오케스트라는 각각 67명과

18명의 대원들로 구성되어 지휘, 반주, 편곡, 악장선생님을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정성으로 연습하여 고등부예배와 주일5부예배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회는 회장을 비롯하여 임역원 7명이 주일 고등부예배와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하여 앞장서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81명의 고등부 충현정학쌍생을 선별하여 예배와 봉사에 앞장서고 있으며, 5개의 소그룹은 51명의 학생들이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각자 주신 재능에 따라 주제를 정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로스는 27명의 헌부장이 임명되어 각자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도목사님과 담당교사와 협력하여 학교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각 과 및 반 교사들도 이들과 함께 협력하여 매월 1회 이상 학교에 찾아가 불신 친구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고등부의 모든 교사들은 주님의 말씀(롬 12:2)에 따라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요 6:29,40)에 중점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참여와 열정의 코드를 가진 요즘의 학생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의 가슴에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불을 붙입니다. 이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향한 거룩한 불을 담기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걸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 복음과 거룩한 성령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들이 미래의 십자가 정병으로 양육되고 주님께 헌신하며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쓰임 받도록 이를 위해 온 교회와 성도들의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사랑하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복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렘루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사랑하사 오늘도 어김없이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나를 안보해 주시며, 인자한 모습으로 지켜봐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은총, 임으로는 늘 감사하지만 내 안에 많은 죄악들, 고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육신의 생각으로 꼭 차 있는 쓴 뿌리들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녹아지지 못하고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조아려 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종인의 삶을 살기보다는 기도의 끈이 느슨해졌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보다 세상 이웃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시간을 낭비했으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밤을 맞이하면 허무함마저 느낄 때가 많아 가슴이 시려옵니다. 주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더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용서를 빌며 좀 더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강단에서 수없이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정말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죄인의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입술로 주님의 그 크신 참 사랑을 증언하는 바를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죄악에 토설할 수 없는 죄인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긍휼함과 자비로움을 힘입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김유재(집사, 6교구)

복음만을 따르는 자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오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은혜를 좇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년2부에서의 섬김은 부족하고 고만 한 나를 주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리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던 자들이 복음의 기쁨을 알고자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은 감사와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에게 장년2부에서의 섬김은 부끄러운 시작도 그 끝도 주님이 하시는 일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발걸음 가운데 기쁨을 채 누리지 못하고 돌아서는 성도들을 볼 때면 안타깝고, 부족하고 고만 한 게 있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세상의 음악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 시작하는 장년2부에서, 주름진 손들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리며 천국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생명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도전을 주시고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부끄러움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께 회개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가 능력 되게 하신 주님과 귀한 만남의 시간을 모두에게 전하고 그 자리가 천국잔치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며 찾아온 성도들에게 은총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골수를 조개며 열매와 승리가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늘리고 귀한 생명이 참된 종들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며 복음만을 따르는 자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지환(권사, 장년2부)

마지막 0.1%까지도 주님만

사람마다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의 때가 있는 것 같다. 내게는 20대 후반에 한번 왔고, 그때야말로 여짜가 나 자신의 것들이 아무 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함박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나는 내 인생의 성공과 꿈을 위해 젊음을 다 바쳐 일하던 직장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나름대로 믿을 안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는 내게 힘든 일이 있을 때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회개와 물이침 그리고 다시 방황하는 생활을 반복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의 자리는 내 마음의 변두리였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청년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획과 나의 야망과 꿈이 결국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셨다.

지금도 ‘내가 그때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지?’ 하고 자신을 잠깐 대견해 하다가도 곧 그것마저도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된다. 그렇게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던 중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래서 다녔던 직장을 그만 두고 교사 임용고사를 준비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고민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시키셔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길로 가는 거예요. 이보다 얼마나 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지세요.’ 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시작한 공부에는 온전히 열매를 맺을 리 없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물면서 새벽기도에 나와서도 “참으로 주님의 하신 일이 합당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 안에서 더 낮아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았다. 말하기 부끄러웠지만, 그렇게 두 번째 준비한 시험에서도 참으로 아슬아슬하게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결과를 알고 있을 때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고민했다. 그렇지만 마지막 0.1%까지도 주님만 끝까지 붙들게 하시는 주님의 연단임을 깨닫게 하셨다. 시험결과가 어떨지, 또 어떤 길을 내 안에 예비하셨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날 주님 웃자락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불안하지 않다는 것이다. 짧으면서도 길었던 최근 몇 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빚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것 하나로 족하다. 족하다고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하다.

임연애(청년1부)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금년에는 선교를 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가 이미 칠십을 넘은고로 나름대로 선교를 갈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사람들이 “올해도 가서야죠.”라고 말하는 통에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빌 2:13)이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인 전도자 학교 입학도 있었습니다. 선교를 가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로 준비하면서 처음 선교 교인 굿이 생각났습니다. 언제나 몽골 사람들이 뇌리에 남아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몽골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화동에 몽골인이 많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따라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한국에 온 지 두 달 만 정도 되었다고 하는 25세의 건장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서툰 한국어로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을 받고 주일 아침 일찍이 데리러 갔습니다. 망우동에 거주하는 그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외산부(국내외국민전교부)로 인내를 했습니다. 주일마다 같은 시간에 약속을 하여 교회로 갔고, 수요일 저녁에도 찾아가서 “우리의 지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백성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매주일 아침이면 이것을 반복했고 수요일에도 반복하였습니다.

그는 교회에 나온 첫 소감이 “기분이 참 좋았다.”고 밝게 웃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수시로 그가 훗날 예수님을 잘 믿고 자기 나라에 가서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매일 전화연락을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지난 ‘교구 총동원 전도자대회’에 그를 초청했습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교구식자들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기쁨의 찬가를 나누며 사랑이 넘쳤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국경이 없는 주님의 참 사랑을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 영원히 주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은총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은영(집사, 11교구)

새가족양육부 6월 수료자

나에게 일어난 기적,

예수 그리스도!

♥ 유난히 일들과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작년 겨울 마지막 날 주변의 권유로 예수님을 오고 싶었다면 어떻게 모르고 용기도 없던 저는 정말 우연한 기회로 선생님의 전도를 받아 교회생활에 오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나의 교감을 이루어는 열쇠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맑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교만과 비뚤고 동등하다 하우 마루를 감사할 줄 깨닫고 겸손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경남)

♥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저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영원한 불 못에 빠져 매대인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찬송은 매마른 제 가슴에 단비가 되었으며 아직 사랑을 데려오는 못했지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 열심인 기도과 전도를 하며 제 자신을 더욱 낫추고 아버지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겠습니다. (경연민)

♥ 교회에 빠지지 않고 헌금을 잘 하면 그것이 믿음생활의 열매인 줄 알고 17년간 다른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다니게 될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친구가 중언교회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여태까지 전도도 안한 못했더니 새 새 믿음 얻고 전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김경옥)

♥ 친구의 전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놀랍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 몸소 고통 받으셨고 죽음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태까지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성윤)

♥ 이미 중언교회에 다니고 있는 아들 내외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게 됨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김경일)

♥ 30여 년 전 중언교회 신도를 담당했던 가까운 친구 덕분에 항상 마음속으로 중언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갈망하였지만 별 방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의 은사로 복음을 전하던 친구를 만나게 되어 중언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알고자하는 정대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이라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십자가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영적 성장을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경남)

♥ 예수님을 믿어오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의 많은 죄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회개하며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수 있어서 교회생활이 즐겁습니다. 이제 제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 제 마음에 중심이 되었고 그 동안의 제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은경)

♥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 죄인 된 나 자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감당하여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믿음생활을 통해 영혼이 소생되고 건강해집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달라고 하고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은혜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영육의 건강함을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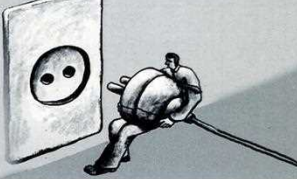
새가족의 길

에너지 절약

현재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냉방비 지출이 작년 대비해 현저히 줄었다. 조금 더하고 불편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온 성도들께 헌신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다. 여름에는 더워야 한다고 많은 하지만 무더위는 우리를 힘들게 한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산이나 바다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선공기나 에어컨을 의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여름에는 많이 변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세상은 에너지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급증하는 국제 유가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은 불가상상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절약'이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불필요한 전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전자제품 사용에 유의하자. 현재 교회는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대신에 교회 내 모든 부속실에 선공기를 설치하였다. 필요한 때에 선공기를 사용하시되 모일이 끝나거나 나날 때에는 전동 송풍과 아울러 선공기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자. 교회는 창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대량로 배양된 삼피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태양광 온수시스템을 현재 시공 중에 있다. 이것이 완성되면 온수생산을 위해 불필요한 전력이 거의 필요없게 된다. (95% 자력발전) 이제 끝을 통하여 땅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행 1:8)로 우리 고대, 모든 든독히 세워질 것이다. 지금 주님을 살펴보자.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는 없는가?

(반갑국)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임시준비로 인해 서울에서 두 달 동안 혼자 지냈어야 했던 저에게 주님은 귀한 찬양을 주셨고 그 찬양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찬양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찬양을 몇 개월 전 친구와의 나눔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찬양이구나!' 하고 지나쳤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정말로 귀한 고백이 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집을 떠나와 혼자서 시련을 준비해야 했던 제 마음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 14:20)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고 하셨습니다. (요. 14:27)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찬양가 370장이 마음에 잘 닿는 찬양을 한 절 한 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만 근심 없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곁을 돌라" "우리의 대장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내게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곁을 참으신 주님이 내게 참 생명과 참 소망을 허락하셨는데 두려워 할 이유가 뭐지? 주님은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십자가 앞에 다 하시고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어깨에 단단히 매어 있던 근심들은 주님이 대신 지셨고 제게는 참 평안과 찬양을 주셨습니다.

2절의 가사처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기도가 되었고, 전 날의 한숨들이 변해서 주님을 향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주를 자비하셔서 나를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세워주시네"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집을 떠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과 저와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에 평안함이 열려 붙어 미리 아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위로하셨고 넘치는 평안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까이까지를 늘 보호하시네" 4절 가사를 통해 주님은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언약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 가까이까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찬송을 통해 마음에 가득했던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셨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도우신 아爸 잘 바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내 앞길을 어떻게 개척하셨든지 그 끝은 영원의 세계 하늘나라이며 영생임을 믿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만 찬송하며 따라가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박수경(성도), 브니엘(중장년)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479	탁희희	1장년2부		1502	김성희	3장년1부	
1480	박복단	22 장년3부	김영애(22)	1503	서진성	3 장년1부	
1481	실금순	16 장년1부	유두현(16)	1504	최종철	7 고등부	전종삼(17)
1482	서현덕	2 장년1부	최영덕(24)	1505	정재경	6 장년2부	전영준(24)
1483	유주주	14 장년2부	임영자(14)	1506	신성진	5 장년2부	김국준(5)
1484	서은석	14 장년1부	임영자(14)	1507	세종환	9 중등3부	정영민(9)
1485	서연필	14 유년부	임영자(14)	1508	최희정	2 장년2부	김현숙(23)
1486	박지영	22 장년2부	임영숙(22)	1509	최희영	22 장년1부	최현숙(22)
1487	임희하	16 장년1부	김소연(16)	1510	김준호	25 외선부	천영준(2)
1488	박지미	17 장년1부	전학희(24)	1511	김준호	25 외선부	천영준(2)
1489	박지훈	17 대학부	전학희(24)	1512	김수영	25 외선부	천영준(2)
1490	유기훈	20 장년1부	이복선(17)	1513	민소현	1 장년1부	김기호(24)
1491	이유진	20 장년1부	이복선(17)	1514	대호성	3 대학부	박지현(1)
1492	정희숙	1 장년1부	권윤숙(2)	1515	정규호	3 대학부	이일섭(8)
1493	민지	25 외선부	박정혜(9)	1516	조은성	13 장년1부	윤준호(2)
1494	민지은	11 장년1부		1517	조영선	1 장년1부	이정현(17)
1495	민선영	7 장년1부		1518	성명순	1 장년2부	이정현(17)
1496	김재훈	10 장년3부	이묘남(16)	1519	김영진	7 장년1부	정성진(16)
1497	장지연	20 대학부	김영숙(16)	1520	조재욱	6 대학부	전영준(1)
1498	배우진	12 대학부	이은경(12)	1521	설수진	16 대학부	박미연(13)
1499	김영준	6 장년1부	임영자(7)	1522	최희정	20 장년1부	김정현(2)
1500	김영환	6 장년1부	조은숙(6)	1523	이정선	17 대학부	이정현(17)
1501	김유림	9 유년부	이복선(9)	1524	김영희	18 장년2부	김종현(9)

*중언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교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